

선생님,
머리 자르러
오세요!

교사/ 홍 성 조



진로 교육은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의식하는 인간 교육으로 진학 지도와 직업 지도를 포함하며 자신의 장래 생활에서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적이고 선택적인 활동이다. 이러한 점으로 비추어 고등학교에서의 진로 교육은 학생으로 하여금 진학 또는 취업에 필요한 지식, 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표가 두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진로 교육이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준비교육 즉, 진학 지도에 편중되어 있어,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결국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만 하거나 또는 희망하지 않은 학생들은 열등 의식에 빠지는 등 면학만을 위한 학급 분위기에 휩싸여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적지 않은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지난해에 내가 담임을 했던 학생들 중의 한 명이 바로 그러한 경우에 처해 있었다. 국민학교 6년동안을 즐겁게 지낸 그 학생은 중학교에 진학하고서부터 갑자기 어려워지는 수학 과목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그것이 점차 확산되어 학습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전과목 성적이 저하되면서 학교에 간다는 자체도 부담이 되었다. 학교수업 후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그런대로 즐거웠지만 3학년이 되고보니 진학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실업계로 갈까 망설이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고, 가능하면 대학에도 진학하고 싶어 인문계에 원서를 냈고 본교에 배정받게 됐다.

1학년에 입학한 후 새로운 기분으로 열심히 공부할 것을 결심하고 또 실제로 노력도 해 보았으나 중학 과정의 기본 실력 부족으로 성적은 향상되지 못하였으며 국, 영, 수만 실시하는 모의 모사 때마다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느 과목을 어느 부분부터 공부해야 하는지조차 몰랐으며 과외 공부도 해 봤고 방학이면 의욕 넘치게 학원 수강도 열심히 해 보았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나름대로의 노력에 비해 저조한 성적을 스스로 경험하면서 학업에 대한 갈등을 겪으며 차가운 겨울을 지내고 2학년

에 진급하여 나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학기 초 면담을 통해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와 의지 약한 자신에 대한 반성을 토론했으며 교단에서의 나의 경험과 학습 방법 및 의욕을 북돋게 하는 여러 실례를 함께 나누며 앞으로의 진로를 모색하는 동안 어느새 그 학생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학생은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한 번 열심히 공부해 보겠다고 다짐을 몇 번이나 하였다. 코피를 쏟으며 몇 날 밤을 새운 적도 있었고 쉬는 시간도 아껴가며 책장을 넘기는 열성을 보였다.

그러나 기본 실력이 부족한 학생이 단기간에 현저한 향상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한 학기가 지나면서 여러 번의 모의고사 및 그 동안의 평가고사 결과가 여전히 저조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부터는 점차 자신감을 잃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 못하는 고민과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만이 소외되어 가고 있다는 고민에 빠져 방황하다가 개별 면담을 요청해 왔다. 더이상 공부는 못하겠다는 것이었

다. 부모님과도 상의를 했다고 했다. 본인이 정 원한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면서 알아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라고 하셨다 한다.

산만하고 나태하게 공부하는 학생이 성적이 잘 안나오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피를 토하며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나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부모님과 면담했다. 어머니께서는 눈물로 말할 수 없는 섭섭함을 대신했고, 아버지께서는 의욕도 없고 흥미도 없는 공부는 강요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뒷바라지나 계속 하시겠다고 했다. 그 학생은, 진학 못한 오빠에게서 받은 섭섭함을 딸에게서 보상받으려 하였던 부모님께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되지만 그러나 다른 면에서라도 기대에 부응하는 딸이 되어 보겠다고 다짐을 하며 부모님께 용서를 빌었다.

교정의 나뭇잎이 누렇게 익어가고 푸르른 하늘의 한 줄기 바람에도 사색에 잠기던 계절.

따사로운 태양이 그리워지기 시

작하면서 그는 진학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진로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가끔 상담을 하였다. 공무원 시험 준비,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각종 시험 안내등을 여러모로 생각하고 검토한 결과, 우선 흥미를 갖고 시작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성취감을 맛보고 자아 실현도 할 수 있는 미용 기술을 익히기로 하였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 학생도 한결 부담감이 줄어든 것 같았고, 구김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학급, 학교 생활에 여유를 갖고 적응하려 노력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담임으로서 도울 일을 찾기 위해 많이 고심을 했으나 직접적인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기가 그리 쉽지는 않았다. 고작해야 가끔 불러 위로하고 함께 애기를 나누는 정도 이외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 같다. 사전에 각 교과 선생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출석부에 비표를 하여 비진학자임을 알려 수업시 많은 부담을 주지 말도록 협조를 부탁하는 한편 정규 교과 끝나는 직후에 바로 귀가시켜 학원에서 미용 실기 교육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취업을 위해 노력한다고는 하나 진학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어 그 점에 대해서도 섭섭함이 없게 하기 위해 방송 통신 대학, 학사 학위 취득 제도, 야간 전문대학 입시 과정을 설명하여 주기도 하고, 앞으로는 학벌 위주가 아닌 자격증의 시대로서 기능인이 우대받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점등 건전한 직업관과 자아 실현을 위해 직업 의식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자주 만나 상담과 격려를 해주었다. 어쨌든 졸업 후 직업을 갖기로 결정을 하고난 후부터는 진학 포기라는 아쉬움도 남아 있긴 했지만 하기 싫은 공부가 아닌 자신이 직접 선택한 일을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선택했다는 뜻에서 하루 하루가 즐겁기만 하다고 했으며 싫었던 학교 생활도 오히려 재미가 있고 매사에 의욕적이어서 친구 관계도 원만하여지고 적극적인 교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했다. 마침 본교에서도 금년에 직업반이 설치됐다. 따라서 그 학생은 직업반에 편성되었고 매사에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 태도때문에 학급의 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그 결과

더욱 더 활발하고 술선수범하면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금년 6월에 나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 작년 이맘때의 성적으로 인한 갈등때문에 어두웠던 얼굴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간의 생활을 묻자 처음엔 생소한 일이었고 흥미도 갖고 있었으나 머리 자르는 일만 하루종일 실습으로 하곤 할 때에는 집에 돌아와서 다리도 아프고 힘도 많이 들어서 몇 번이나 울기도 했다. 한다. 그러나 더이상 다른 진로를 생각할 수 없는 처지이고 이것이 바로 나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했다. 어느 일یدن 일정한 수준에 오르기까지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인내력을 길러야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고, 모든 일에 직면했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일에 더욱 충실할 것을 부탁하였다.

그날 교정 벤치에서 함께 바라본 하늘은 너무나 찬란한 푸르름 그것

이었다.

생활 지도 수범 사례를 써보라는 권고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바로 이 학생이었다. 얼마전에 불러 만나본 이 학생의 현재 상황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고 시절의 소중한 추억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서서히 이 교정에 대한 아쉬움마저 느껴진다고 했다. 그리고 졸업 후엔 2~3년간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경험을 쌓은 후 개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때에 선생님이 오시면 무료로 모시겠다고 말하며 활짝 웃는다.

가능성도 없는 입시에 대한 중압감과 피해 의식에 젖어, 졸업 후에도 방황하는 졸업생들을 지켜보면 서 우리가 진정 해야할 일이 무엇

인가를 새삼 되새겨 보며 진로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개인의 적성, 소질, 성적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대학 진학만을 원하는 학부모의 비합리적인 진로 의식의 일대 혁신적인 대전환을 기대하는 한편, 자칫 열등 의식에 빠지기 쉬운 비진학 취업 희망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 세계를 알고 직업의 귀천 의식을 불식시키며 나아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다같이 협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믿으며 이 글을 맺는다.

※ 이 학생은 91.12월에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현재 종업원으로 종사하고 있다. 大苑